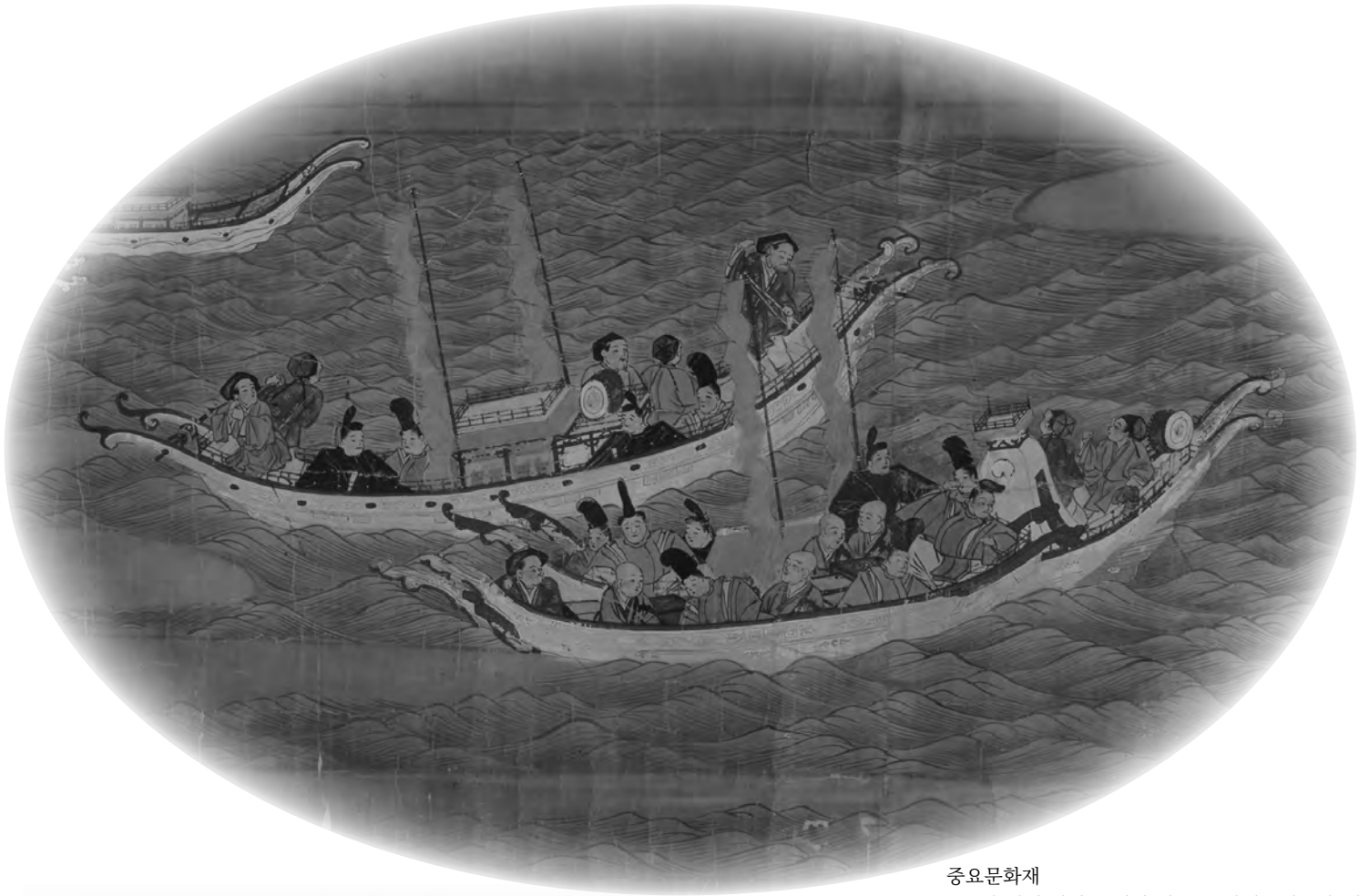


특별전 감상의 길잡이

<불교의 계율과 감진 스님>



중요문화재

<동방 정벌 전기[도세이 텐] 두루마리그림> 제4권
(부분)

렌교 그림, 가마쿠라시대 에이닌 6년(1298), 나라
도쇼다이지 절 소장

※해당 장면 전시 기간: 4월 20일-5월 16일



감진 스님은 어떤 인물이었나요?
'계율'이란?
함께 알아보시다!

국보

<감진 스님 좌상>

나라시대 8세기, 나라 도쇼다이지 절 소장

※전 기간 전시



'계율'이란?

중국의 승려인 감진 스님이 일본에 전한 불교의 '계율'.

고대 인도에서 비롯한 계율은 비구와 비구니 승려가 수행할 때 집단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윤리적 행동 기준과 규칙으로, 석가모니 부처가 정했다고 여겨졌습니다.

계(戒, Śīla, 윤리적 행동의 기준)

- 출가한 승려, 재가 신자 모두 불교도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마음가짐
- 생활 습관 등과 관련
- 벌을 받지는 않지만 강제하지 않아도 스스로 지켜야 한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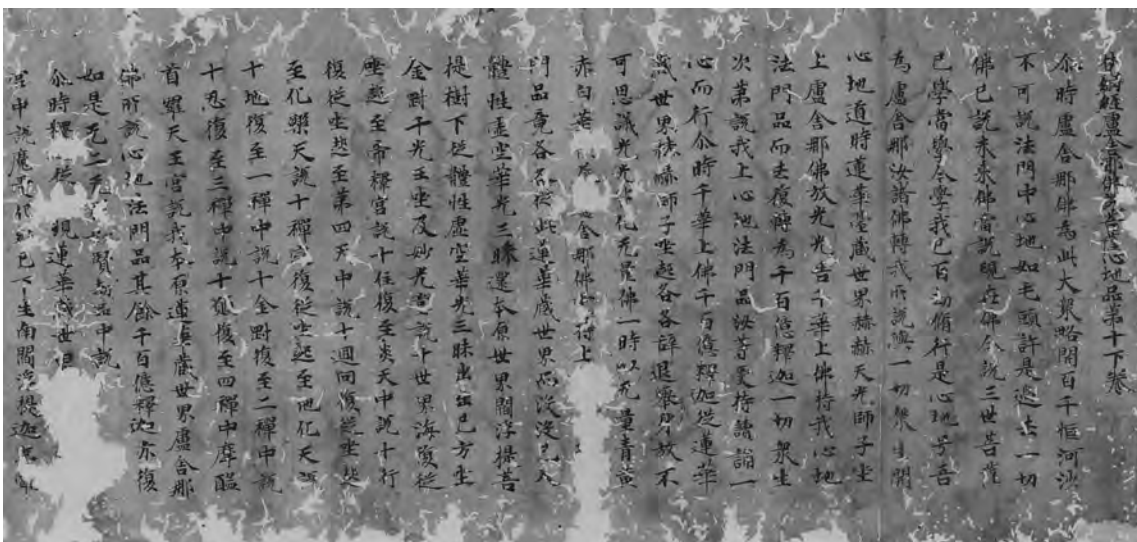
율(律, Vinaya, 강제적인 규칙)

- 출가한 승려가 지켜야 하는 규칙
- 지키지 않으면 정해진 벌을 받는다

계율은 인도에서 시작하여 중국과 한반도를 거쳐 일본으로 전해지면서, 각 풍토와 문화에 맞게 변화했습니다.



※지도의 연대는 각 지역에서 계율이 정리되기 시작한 무렵을 나타냅니다.



『범명경』에는 '살생하지 말 것', '고기를 먹지 말 것'과 같이, 무겁고 가벼운 계(戒)가 제시되어 있다!



감진 스님은 어떤 인물이었나요?

무엇을 했나요?

승려 감진(688-763)은 중국 당시대, 양주(지금의 중국 장쑤성) 지역 출신입니다.
753년에 뱃길로 일본에 도착하여 '계율'을 일본에 전했습니다. 불교도가 되기 위해서는 수계 의식을 통해서 계를 받아야 하는데, 이 의식을 거행하는 계단(戒壇)을 일본에서 처음으로 세웠습니다. 수행 장소로 나라에 도쇼다이지 절을 세우고 제자들을 지도했습니다.

국보
<감진 스님 좌상>
나라시대, 8세기, 나라 도쇼다이지 절 소장
※전 기간 전시



극적인 인생

감진 스님이 중국 대명사 절에서 주지 스님을 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. 일본의 쇼무 천황(701-756)의 명을 받아 중국에 온 2명의 승려(요에이·후쇼)에게서 '부처의 바른 가르침을 일본에 전해주시기를'이라는 부탁을 받습니다.

이미 존경받는 승려였던 감진 스님은 중국에서의 지위를 버리고 일본으로 가기 위해 위험이 도사리는 뱃길을 떠납니다. 다섯 번 실패하고 또 도중에 실명까지 하고 말지만, 포기하지 않고 결국에는 일본 땅에 도착했습니다.

<동방 정벌 전기[도세이 덴] 두루마리그림>은 감진 스님의 극적인 생애를 그린 작품입니다.



나라의 도다이지 절 대불전
앞에서 쇼무 천황 등에게
계를 내려주는 장면이다란~!



중요문화재
<동방 정벌 전기[도세이 덴] 두루마리그림> 제5권 (부분)
렌고 그림, 가마쿠라시대 에이닌 6년(1298), 나라 도쇼다이지 절 소장
※해당 장면 전시 기간: 4월 27일-5월 9일



감진 스님이 준 영향

감진 스님이 타고 온 배에는 뭐가 실려 있었을까요?

◆불교 관련

- 경전, 경전의 주석이나 해설서
- 부처의 사리(석가모니 부처의 뼈)
- 불상과 불화
- 불교 의식 도구

◆문화 관련

- 음식(된장, 면, 과자 등)
- 향료와 약(설탕 등)
- 동전
- 유명한 서예가(왕희지 등)가 쓴 필적
- 여러 분야의 서책

감진 스님과 함께 배를 타고 일본에 온 사람들

- 감진 스님의 제자 승려
- 여러 분야의 장인

국보
<사자후 보살로 알려진 조각상>
나라시대, 8세기, 나라 도쇼다이 지 절 소장
※전 기간 전시



감진 스님 덕분에 당시의 최신 문화와 기술이 일본에 전해졌구나~!

감진 스님이 일본에서 도쇼다이 절을 세웠을 무렵의 불상으로 추정됩니다. 불상을 받치는 대좌까지 포함해 나무 하나를 그대로 깎아냈으며, 몸통은 넘치는 양감을 보여줍니다. 기존 일본의 조각에서는 볼 수 없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, 감진 스님과 함께 중국에서 일본으로 온 장인이 제작에 관여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.

계율의 계승

감진 스님이 일본에 건너온 것으로 비로소 일본 불교에서도 정식 계율을 전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하지만 이후 일본 사회의 변화에 따라 '계율'에 대한 생각은 시대마다 달라지기도 했습니다.

일본에 도입된 이후로부터 '불교도는 어때야 하는가', '불교는 어때야 하는가'하는 물음을 던져 온 계율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

교넨 국사 열반 700년 기념 특별전
<감진 스님과 계율의 계승>

기간: 2021년 3월 27일-5월 16일
장소: 교토국립박물관 헤이세이 지신관

편집: 교토국립박물관 교육실
번역: 교토국립박물관 기획실
발행: 2021년 3월 27일



令和2年度 文化庁
地域と協働した博物館創造活動支援事業